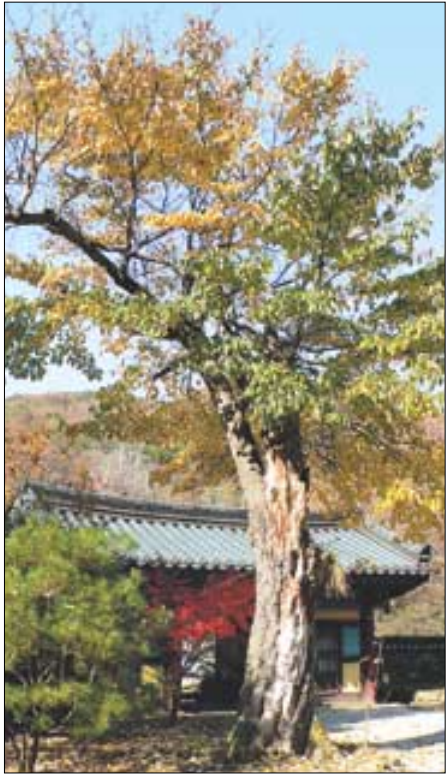


자연과 사람의 공존 '설법'



청룡사 증충나무.



청룡사 대웅전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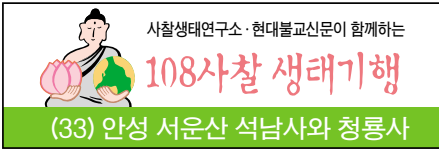


은적암 주변 조릿대 군락.



등산로 쓰레기.

급복정맥의 첫 머리에 앉은 경기도 안성 서운산은 노년기의 산이지만 경기도와 충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천안 광덕산이며 청양 일월산이며 예산 가야산이 모두 이 서운산의 아우들이다. 서운산은 해발 6백미터를 넘지 못하지만 일찍이 명산 소리를 들었던 것은 역시 이 품속에 청룡사와 석남사가 화룡정점(龍龍點)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청룡사는 고려 공민왕 때 나옹화상이 지금의 이름으로 크게 중창했다고 전한다. 조선 중기에는 억울하게 죽은 영창대군의 넋을 보듬어 안았고 조선말에는 갈 곳 없는 남사당패들을 안아주었다. 사적비가 있는 개울 건너 오른쪽 골짜기가 바로 남사당패들이 숨어살던 불당골이다.



청룡사 경내에 들어서면 늙은 증충나무 한 그루가 노란 단풍을 황금눈뿔처럼 떨어뜨리고 서 있다. 이토록 나이든 증충나무는 우리 절집에 따로 없을 것이다. 증충나무는 탐을 연상케 하는 나무이다. 줄기 중간 중간에 나무 가지가 증충이 뻗어져 나간 모습이 탐을 많이 닮았다. 그러나 이 증충나무는 너무 늙어서 젊은 날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 근래 새로 복원한 묘사채의 기둥들도 무늬가 드러나는 자연목을 그대로 써서 옛 것과 새 것의 '어울림'이 예사롭지 않다.

청룡사 주변 숲에는 남생이무당벌레가 많다. 이름 그대로 동글납작하게 생긴 것이 기온이 떨어지면 햇볕 좋은 묘사채로 슬슬 모여든다. 그리고는 따뜻한 마루틈이나 기둥틈을 찾아 몇 마리씩 모여서 겨울을 난다. 어떤 녀석은 방안에까지 기어들어와 능청스럽게 겨울을 나기도 한다. 청룡사에서 신내암자인 은적암까지는 등산로를 따라 한 시간 거리이다. 등산로 옆에 자리한 습지와 묵논은 양서류와 수서곤충에겐 극락이다. 늦가을 내뿜는 색깔이 유난히 진하다. 이것은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다. 눈바람이 닿지 않는 큰 바위나 고목나무의 갈라진 틈바구니에서 꼼짝도 않고 겨울을 난다.

교목·임산 초본 등 어울려 튼튼한 숲 이뤄 은적암 주변 조릿대 군락 산상태 방지 역할

서운산은 노령의 산이라 가파른 급경사도 없고, 험한 암봉도 없는 평범한 산이다. 은적암을 지나 정상에 이르는 숲길은 안성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등산 코스이다. 등산로 곳곳에 함부로 모아낸 쓰레기들이 눈에 띈다. 각자가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는 시대도 이미 지났다. 이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등산시대이다. 이 구간의 숲은 교목과 아교목과 관목과 임산 초본들이 한데 어울려 비교적 튼튼한 중위구조를 보여준다. 숲의 역사를 말해주는 늙은 갈참나무가 한 그루 넓어져 있다. 수백 년을 뜯 눈으로 장좌불와해온 갈참나무, 죽어 꺾여서야 비로소 육신을 지상에 누었다. 나무 속은 부후현상으로 터널처럼 텅 비었다. 나무도 열반이 가까우면 저렇게 속을 비우고 사는가 싶다.

은적암 아래는 조릿대가 넓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조릿대는 땅속뿌리(地下莖)를 갖고 밀생하기 때문에 산상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릿대가 넓게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은적암은 이름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이 골짜기에서 가장 양명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객들이 중간 기착지가 되었다. 등산로 주변 여기저기에 밤나무가 흩어져 있다.

정상 부근에 상수리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정상에서 서운산을 돌아 석남사까지는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이다.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면 석남사까지는 걸어서 30분가량이다. 개울을 따라 인적 없이 더욱 호젓한 길이 나 있다. 석남사가 가까워질수록 물빛이 붉은 것은 철분이 많은 토양 때문이다. 개울가에 잘 자란 은사시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청룡사 뒤 골짜기를 비롯해 서운산 자락에는 곳곳에 우람한 몸집의 은사시나무들이 관찰된다. 석남사 절 앞 갈나무에 큰오색딱따구리 한 마리가 붙어서 나무줄기

를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다.

석남사 는 좌우를 둘러싼 산세도 그렇거나와 사하촌을 거느리지 않아 세속과 똑 끊어진 산중절이다. 그래서 절맛이 남다르다. 산문이 따로 없는 석남사에서 산문 노릇을 하는 금광루를 들어서면 경내는 대각전 영산전 묘사채 공간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세 구역은 자연미가 베인 가파른 계단길로 연결되어 있다. 보물로 지정된 영산전은 해체수리 공사에 들어가 있다. 대각전은 석남사의 본전이다. 제멋대로 생긴 내부의 대들보는 자연미가 물씬 풍긴다.

석남사에 오면 꼭 돌아봐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통해우소이다. 관청에서 수세식으로 지으라는 것을 회주이신 정무스님이 고집해 얼마 전에 전통해우소로 다시 복원한 것이다. 절집의 해우소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으로 분노를 처리한다. 송광사나 선암사처럼 낙엽이나 톱밥 등의 매질(媒質)을 변조에 뿌려서 건분(乾糞)을 만드는 방법과 변조간의 분노를 발효시켜서 액비(液肥)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석남사 해우소는 흔히 '푸세식'으로 불리는 후자의 경우이다.

몇 년을 곰삭은 액비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갖 떨어진 배설물은 자연적으로 액비 위에 뜨게 되어 있다. 액비에는 인산과 각종 미네랄과 염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채전밭에는 더 없는 보약이다. 내부에 들어가 불일을 보고 앉아있어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특수용해시설이 되어 있으니 휴지나 그 어떤 것들도 함부로 버리지 마시오'라는 글씨가 칸칸이 붙어 있다. 하지만 특수시설이라는 것이 변조간을 깊이 파고 햇빛과 바람이 들도록 살창과 구멍을 많이 낸 것이다. 분노들이 썩지 않고 발효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기와 물을 낭비하고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수세식보다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환경시대에 분보기가 될 만한 해우소이다. 석남사는 해우소 말고도 '생태사찰'이라 불릴 만한 좋은 점 몇 가지를 지니고 있다. 심야보일러를 사용하는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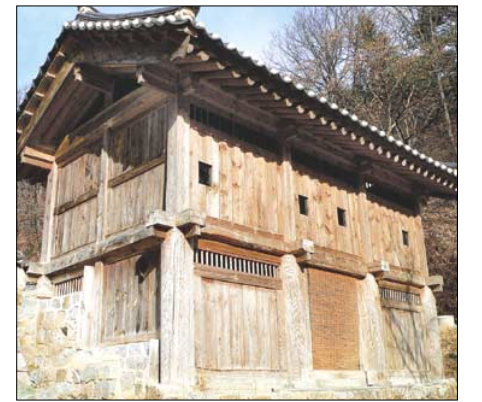
제멋대로 생긴 대웅전 대들보 자연미 물씬 해우소 시스템·유기농 등 생태사찰 모범

남사에서는 잔류를 지키기 위해 하루 종일 이불을 깔아둔다. 겨울에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 대웅들이 큰방에서 예불을 지낸다. 사중 식구가 다섯에 불과한데도 꼭 죽비를 치고 대중공양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법회 때를 제외하고는 공양간에서 세제를 쓰지 않는다. 화장지를 쓰는 데도 대중의 눈치를 살피며 한다. 세제를 낭비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세탁기는 가능한 돌리지 않는다. 웬만한 채소는 유기농으로 직접 길러서 먹는다. 벌레 먹은 채소들이 밥상에 오르는 것은 예사이다.

석남사에서 서운산 정상까지는 1.8킬로미터이다. 계곡을 따라 두 줄기의 등산로가 나 있는데, 한 줄기는 열두구비 산길이며 다른 한 줄기는 개울을 따라 난 등산로이다. 개울 주변으로는 신나무 복자기 물푸레나무 왕버들 미류나무 쪽동백 때죽나무 노간주 굴참나무 증충나무 개암나무 산뽕나무 당단풍 노티나무 등이 능선까지 어울려 있다. 개울 등산로 가까이에 고려말에 조성된 마애불이 있다.

벽면 곳곳에 회색 석이(石耳)버섯이 돌아나 있다. 일명 들버섯이라고 불리는 석이버섯은 석이속(屬)의 지의류(地衣類)이다. 겉모양과는 달리 공기가 비교적 청정한 산중의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열상지(葉狀地衣)이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죽은 듯이 납작 붙어 있다가 습기가 여름철이 되면 다시 왕성하게 부활해 후순을 퍼뜨린다. 마애불 주변에 몇 그루의 노송들이 있지만 활엽수들의 등쌀에 노후가 편치 못하다. 너무 늙어서 자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주위의 활엽수들을 쳐서 경관이라도 얻었으면 싶다.

글·사진=김재일(생활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석남사 해우소.



석남사 큰떡나무.



마데우저지와 은사시 나무.



석남사 마애불.

정토사 건립 불사 一千佛殿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루어지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근 무량수경 권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여래불께 귀의하여 크니큰 가르침 깨달으며 불자님들과 함께 법연을 맺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성불하여지이다.

귀의 삼보하옵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속에 보리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 드립니다.오늘도 고통의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불연을 만나고도 무상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며 탐, 진, 치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고향, 따뜻한 가정을 서원하는 열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한마음의 자재한 법을 배우고자 모여 들었으나, 도량이 협소해진지라 충분한 수행공간과 부처님 도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바램은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한결 같았습니다. 이에 정토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만민의 기도도량과 교회의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자 법당 중창 불사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법당이란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삶을 가다듬는 곳이자 기도 정진에 임하며 자기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불사 동장을 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부처님께서서는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래 불사란 인연 있는 이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도록 하고 무연 중생에게는 인연을 맺어 현재에서나 내세에서나 복락을 누리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이 원력을 세워 금번 불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인연의 공덕으로 무명의 업장을 벗어날리고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이 중창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인연과 공덕이 후대까지 길이 길이 회향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중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열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주지 원천

● 정토사 중창불사 365일 특별 관음기도

- 입재 : 2004. 12. 5.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토삼부경 강의

● 일천불 부처님 조성불사

1인 1불 30만원(분납 가능), 설판제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 법당불사 내역 : 대들보 (대 중 소), 주춧돌, 기둥, 문짝, 시멘트

● 불사동참 임금계좌

온라인 : 동행 204044-52-048294 (예금주 박창식)
* 불사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1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매월 초하루·신중기도 : (음)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산신제일 : (음) 8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보름인등법회 : (음) 15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지장제일 : (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불만일회
자성미타원

정 토 사

회주 박철산
주지 박승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전화 : 02) 396-3405, 379-5502